

전남

고구려대학, 해남에 2캠퍼스

(前 나주대학)

내년 3월 개강... 농촌 특성 살린 2~3개 학과 개설

나주에 있는 고구려대학(전 나주 대학·총장 임재규)이 해남에 제 2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캠퍼스는 해남군과 협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 등 설립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강에 맞춰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고구려대학과 해남군에 따르면 양측 관계자들은 12일 만나 해남 캠퍼스 설립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캠퍼스 부지는 오는 12월 말 폐교 예정인 옥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강준비를 할 것이라며 "군과 협의절차를 마무리한 뒤 군민의견을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군도 김홍식 군수의 공약사항이던 대학(분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200여명(추정)의 모집인원과 농촌 특성에 맞는 2~3개 학과개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해남캠퍼스 외에 군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침뜸·풍수지리 등 6주, 12주 등 기간별로 다양한 학과를 강의하는 평생교육원 개설에 관한 절차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대학 관계자는 "일단 폐교 예정인 옥천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강준비를 할 것"이라며 "군과 협의절차를 마무리한 뒤 군민의견을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군도 김홍식 군수의 공약사항이던 대학(분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당국의 인

허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조만간 업무협약체결을 할 계획"이라며 "캠퍼스부지만 결정되면 내년부터라도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은 대학이 설립될 경우 인구 유입은 물론 농가소득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990년 전문대 설립 추진, 전남대 농대 캠퍼스 이전, 1998년 대불대 캠퍼스 설립 추진 등 지속적으로 대학 유치운동을 펼쳐 왔으나 무위에 그쳤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해남=박희석기자 dia@



농촌돕기 기동단 피 땀기

광산군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이 최근 옥곡동 들녘에서 벼수확에 앞서 피를 제거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독거노인과 건강 이상으로 가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기동단을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광산주 제공)

"하니움센터 '봇 조형물' 모방 아니다"

조성태 작가 "타지역에 4차례 전시한 작품"

화순군 랜드마크로 건립된 '봇 조형물'의 모방 의혹에 대해 해당 작가 조성태(36)씨는 10일 " '봇 조형물'은 나의 창작품"이라며 "다른 작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봇 조형물을 지난 9월 화순군내 하니움 문화포스센터에 설치하기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4차례나 전시한 작품"이라며

"문 의원이 서울 인사동에 설치된 A 교수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언론에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9일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조씨가 제작한 '봇 조형물' 작품은 지난 2007년 인신상에 세워진 A 교수의 작품을 모방한 의심이 든다"고 관련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화순=정운수기자

화순군 3년동안 3,500억 투자유치

화순군이 지난 3년 동안 3천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완준 군수가 취임한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기업들이 3천160억원 자료를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9일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조씨가 제작한 '봇 조형물' 작품은 지난 2007년 인신상에 세워진 A 교수의 작품을 모방한 의심이 든다"고 관련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화순=정운수기자

원 등이다. 군은 생활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와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하면 생활의약산업 도시(데라라 타운)가 생각날 정도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며 "특히 내년에 착공하는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와 KTR(한국 화학시험연구원)은 화순군 연구개발기관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정운수기자

완도군 민선 3·4기 살림 잘했다

재정자립도 7.2% 불구 채무 88억 상황

완도군은 재정자립도 7.2%로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함에 따라 지방채가 29억여원에 불과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 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적으나 예산규모가 3천472억원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재원이 부족함에도 예산규모가 큰 배경은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수납,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북·구절초활용 산업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공무원들을 비롯한 각종사업의 빠른 행보로 많은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한 결과이다.

완도군의 채무발행액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총 117억6천

200만원이었으나 민선 3·4기동안 꾸준히 채무를 상환해 11월 현재 채무잔액은 29억500만원으로 전남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 143억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재정운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완도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안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2009 광복회 운영평가결과 2년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1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정운수기자 ejchung@

'62개 절구통 떡메치기' 기네스 도전

남평농협, 오늘 '농업인의 날' 맞아

62개의 전통 절구통에서 동시에 떡메를 치는 이색적인 기네스 도전행사가 나주에서 열린다.

나주시 남평농협은 11일 '제1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남평읍 드림길 하중도 공원에서 '62개 마을 전통 절구통 동시 떡메치기-대한민국 기네스 도전' 이벤트를 벌인다.

이행 행사는 쌀소비 촉진과 전국 우수브랜드인 '왕건이 탐낸 쌀' 홍보를 위한 것으로 남평농협 조합원 등 모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관내 62개 마을에서 각각 1개의 절구통을 들고 나와 떡메치기 행사를 벌이고 마을별로 만든 떡은 맛과 모양 등에 대해 영농희

장과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200여 명의 품평을 거쳐 시상도 하게 된다.

또 이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사짓는 여인을 공경하는 의식으로 농업인 가운데 최고령자 30명을 초청해 각계 기관장과 청년들이 마을 어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발을 씻어 드리는 세족식과 다례식도 진행된다. 이밖에 고무신 날리기, 쌀가마 들기 장사 선반대회, 대박 터뜨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

완도 명사심리에 '해조류 체험센터'

기능성 식품 전시·판매... 2011년 완공

완도군 신지명 명사심리 인근에 '해조류 기능성 식품 전시·판매 및 체험센터(조감도)'가 들어선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민간 투자자인 ㈜국민은행이 96억 5천만 원을 들여 명사심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전체면적 4천32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체험센터를 건립한다.

2011년 4월 완공 예정인 이 체험센터에는 기능성 온천시설, 해조류 체험관과 판매관, 숙박시설, 야외 풀 등이 들어선다.

군 관계자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서남해의 최고의 휴양지인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에 체험센터가 들어서면 관광객들



이 완도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사고, 일상에 지친 심신의 피로도 말끔하게 풀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운수기자 ejchung@

완도항 추락방지 난간 설치

목포 해양항만청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이 횡단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해상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10일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완도항을 찾는 낚시꾼과 관광객이 야간에 바다로 추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남방포제에는 400m의 안전난간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야간에 횡단시설 내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 경고판도 3곳에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tlee@



전남농협 '가래떡 데이' 홍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11일 '가래떡 데이'를 앞두고 10일 상무지구 직가래 장터에서 가래떡을 구워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Large table containing financial data for various companies and regions, including columns for company names, addresses, and financial metrics. Includes a header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and 'K (주)국민법률경매'.